



2 0 1 4

MECENAT

AWARDS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2014 vol.018

고객에게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늘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 경남은행입니다.
경남은행은 지금처럼
늘 고객과 함께하겠습니다.
고객에게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드리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경남은행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2014 vol.018

COVER STORY



호두까기 인형 'Grand pas de deux' - 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은 1962년에 창단된 최초의 직업 발레단으로 국내 최고의 무용수들과 세계 유명 작품을 레퍼토리로 보유하고 있다.

2014 경남메세나대회에서 국립발레단이 <호두까기 인형 'Grand pas de deux'> 특별공연을 선보이며 이날을 더욱 아름답게 빛냈다.

발행인 최재호
편집인 한동진
진행 김은아
발행일 2014. 12. 31
발행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3 3층
Tel_055.285.5611 Fax_055.274.1923
홈페이지 www.gnmecenat.or.kr
제작 오션커뮤니케이션즈 Tel_055.296.4995

Special Theme

- 04 2014 결연식 |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첫걸음
- 06 2014 메세나대회 | 한 해를 마무리하는 메세나 축제
- 08 2014 메세나상 | 메세나상 수상자 특집

Mecenat Project

- 14 경남A&B오케스트라 | 직장인들의 설렘 가득 첫 연주회
- 18 18개 시·군 찾아가는 메세나 | 산청·함양
- 20 문화나눔 | 문화예술로 온기를 전하다
- 22 메세나포럼 | 산청의 가을을 즐기다
- 26 아름다운 동행 | (주)구구 + 경남전업미술가협회
| (주)ONE
| 예인여성병원

People in Mecenat

- 30 문화CEO | 환경사진다, 원광건설 조성제 대표이사
- 32 경남의 예술인 | 창원예총 박금숙 회장
- 36 메세나인 | 메디치코리아 이재철 대표

Fun in Mecenat

- 38 북아트 | 내가 만드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의 책
- 40 문학과의 만남 | 가을, 결로 만나다
| 문학도크론서트
- 42 예술단체 | 인생을 다듬은 아름다움, 은빛소리실버합창단
| 예향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산 그림갤러리
- 44 문화에세이 | 박서영 시인이 본 '안녕, 투이'



도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변함없이 경남메세나협의회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은 경남메세나협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슬로건인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이 진정성 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메세나 기반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기업을 화폭에 담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낸 기획전시 '어울림과 소통展'이 많은 호평을 받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직장인들을 모아 '경남A&B오케스트라'를 결성하여 12월 3일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창단연주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메세나를 도내 곳곳에 전파하고자 산청군과 함양군을 찾아가 지역기업인과 예술인을 초청하여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고,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를 열어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의미있는 성과는 2007년 창립 이래 꾸준히 예술활동을 지원한 결과, 현재까지 예술단체 누적지원금이 100억원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만 115개 팀이 결연하였고, 예술단체 지원금은 20억원을 넘었습니다. 수혜를 받은 많은 예술단체들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으로 훌륭한 공연과 전시를 열어 경남 문화예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최근 발표한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에서 '메세나 활성화'가 주요 문화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창립부터 현재의 메세나가 있기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경상남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앞으로 경남메세나협의회는 더욱 발전하여 보다 질 높은 문화기반을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에도 기존 사업을 토대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경상남도에서 매칭펀드 사업비를 6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창원시에서 시·군 중 처음으로 매칭펀드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매칭펀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면, 예술단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어느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결연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예술인들이 더욱 활발히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맞춤형 코디네이터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7월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메세나법'이 시행되어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 후원 및 후원자 포상 등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2월 중 경남메세나협의회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받게 되면, 앞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문화예술 후원을 강화할 수 있고, 또 경남메세나만의 지역문화특화사업들을 기획·시행하여 경남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에 처음 시도했던 18개 시·군 찾아가는 메세나 사업을 하동, 거창, 의령, 고성, 거제 등으로 확대 시행하여 경남 전 지역에 메세나가 활성화되어 경남도민 모두가 편중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화나눔 사업도 더욱 활발히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문화나눔 사업은 지역적, 환경적 영향으로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입니다. 우리의 작은 문화나눔 활동들이 불씨가 되어 경남 곳곳에 퍼져나가 도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가까이하고 즐기는 풍요로운 문화경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경남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울타리 없는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예술로 이름 높이는 그날까지 경남메세나협의회는 경남의 기업인과 예술인들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는 조력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

경남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울타리 없는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예술로
이름 높이는 그날까지
경남메세나협의회는 경남의 기업인과
예술인들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는
조력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



만나면 행복합니다

2014 경남메세나 결연식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는 법정 스님의 말씀이 있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진실은 진실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진심을 다해 함께 갈 사람들이 모여 인연을 맺었다. 청실홍실의 의미를 되새기며 메세나 결연을 맺는 이들이다.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첫걸음 - 결연식

9월 30일 오후, 경남메세나협의회는 창원리베라컨벤션에서 '2014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을 가졌다. 결연식에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롯해 최재호 회장, 기업인과 예술인, 유관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결연의 기쁨을 나눴다. 2007년 출범 당시 79개 회원사가 10팀 결연에서 2014년 211개 회원사와 120여개 팀 결연으로 늘어날 만큼 성장을 거듭한 경남메세나협회지만 결연식마다 항상 첫발을 내딛는 마음이다. 지난해 꿈의 목표인 100개팀 결연을 넘기며 내실을 다져가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하며 지속

된 결연을 이어가고 또 새로운 결연을 맺는 이 모두가 소중한 고마운 인연이기 때문이다.

최재호 경남메세나협회 회장은 이날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기업과 예술인, 도민들의 생활에 진정한 예술이 담길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결연사업을 펼쳐가겠다"며 기업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2014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은 (주)센트럴과 경남A&B오케스트라 등 올해 신규 결연 팀부터 7년 차 결연 팀까지 40여 개 팀이 참석해 청홍색 결연 머플러를 서로의 목에 걸어주며 아름다운 동행을 약



속했다. 메세나 결연 사업을 통해 기업은 사회공헌, 마케팅, 경영전략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결연기업은 예술단체에 활동 자금이나 공간 등을 지원하고 예술단체는 사내 공연, 직원예술교육 등으로 기업의 창조적 문화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경남메세나협의회는 기업인과 예술단체가 함께 도내 18개 시군으로 찾아가는 '찾아가는 메세나'를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지역 예술영재에 대한 장학금 전달과 함께 지역민을 위한 공연도 열렸다. 결연식을 기다리는 동안 로비에서는 다례문화체험 우리

차 시음회와 손과 모래로 결연 축하 이야기를 건넨 샌드아트 등 즐길 거리 또한 풍성했다. 결연식 테이블을 누비며 즐거움을 안겨준 매직 퍼포먼스는 이날의 기쁨을 배가시켰다.

"내실을 다지는 사업의 효과는 당장 눈에 띄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로부터 삶의 질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경남메세나협회 최재호 회장의 말처럼, 함께 할수록 더 발전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은 해를 거듭하며 우리 지역 문화계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일곱해 째, 소중한 인연으로 귀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남메세나협회는 경제와 문화가 함께하는 문화중심도시 경남의 주춧돌이다.



Festival & Awards

"촛불은 부드러운 미풍에도 꺼진다.
그것은 바깥에 있는 것에 의해 점화되기 때문이다.
반딧불이는 폭풍에도 빛을 잃지 않는다.
그 빛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잠언을 읽으며 경남메세나협의회를 떠올린다. 경남메세나협회의 촛불로
타오른 문화예술 운동이 이제는 지역기업과 예술인들 마음속에서 빛을 낸다.
자기 안의 빛으로 폭풍에도 꺼지지 않는 반딧불이처럼.

2014년 겨울의 초입, 올해를 결산하는 '2014 경남메세나대회'가 열렸다. 창립 7주년을 맞은 경남메세나협회의 지원으로 경남의 문화예술가들은 어느 해보다 활발한 공연과 전시활동을 펼쳐며 우리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다. 기업과 예술단체 100개 팀이 결연하고, 누적 지원금 100억원을 돌파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

문화예술영재상 수상자인 김지인(경남예고·성악), 조수민(여원학교·바이올린), 정해빈(밀양초·무용) 양의 공연은 어린 학생들이라 생각할 수 없는 프로의 기량을 뽐내며 앞으로 우리 예술계를 이끌어 갈 유망주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국립발레단의 축하공연 '호두까기 인형'은 지역에서 보기 드문 무대를 선보이며 갈채를 받았다.

최재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7년 창립 이래 꾸준히 예술을 지원한 결과, 100억의 예술지원 성과를 이룰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덕분에 경남도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에 메세나가 주요문화사업으로 선정됐다"며 함께하는 메세나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남메세나대상 영예의 대상은 the큰병원(행정원장 박창석)이 수상했다. the큰병원은 창원과 김해의 더큰병원에 '숲 갤러리'를 열어 전시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병원으로 유일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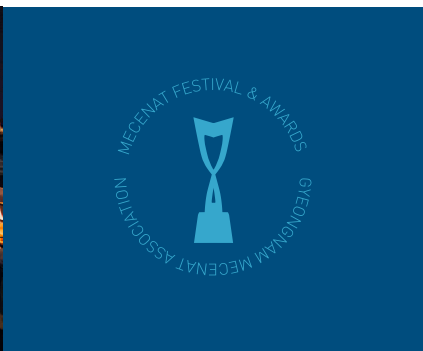
2014년 12월 8일
 풀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경남메세나대회가 열렸다.



3개 예술단체를 후원하고 갤러리 외에도 로비음악회, 문화송년회 등을 정기적으로 열고 기부활동, 무료강좌 개최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며 열악한 예술단체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남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뿌리내리게 한 공로를 치하하는 메세나인상은 '예술로 소통하는 법정' 사업을 펼친 강만구 창원지방방법원장이 수상했다. 문화공헌상에는 '장유여성합창단과 결연을 맺고 문화예술로 행복을 나누는 경원벤티크(주)(대표이사 공경열)가, 문화경영상은 문화예술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범한산업(주)(대표이사 정영식), 기업과 문화예술의 파트너십을 발휘한 Arts & Business상은 최장기 결연을 이어가고 있는 (주)북성산업(대표이사 박환병)과 풍류춤연구소(대표 강동욱)가 수상했다. 그리고 특별공로상은 경남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후대에 빛나는 문화유산을 남겨준 공로로 동서화랑故송인식 관장을 선정했다.

경남 문화예술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모인지 7년. 별이 빛날 수 있는 이유는 까만 밤하늘이라고 했다. 문화예술가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한 많은 메세나 기업과 기업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애쓴 문화예술인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밤하늘이 되어 주었다. 경남메세나협의회는 문화예술을 통한 아름다운 사회공헌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새로운 오늘을 일깨운다.



the큰병원 행정원장 박창석

Writer 진강숙 | Photographer 이상헌

8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산뜻한 그림이 반긴다. 몇몇의 병원갤러리처럼 복도전시를 상상하다가 조각전이라는 말을 생각해내고 두리번거리는 시선에 노란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공간이 들어온다. 투명한 유리문 건너 조각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긴다. the큰병원 내 '숲 갤러리'. 여느 갤러리보다 멋진 공간이다.



갤러리. 예술과 치유의... 숲

2010년 5월 창원 the큰병원, 2014년 6월 김해 the큰병원에 각각 개관한 '숲 갤러리'는 병원을 찾는 이들에게 숲에 온 것처럼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치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작품을 발표하고 싶지만 비싼 상업갤러리나 공공아트홀의 대관료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지역 작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감상하며 힘든 치료를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지역민들에게는 멀리 가지 않아도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모두의 선물이다. 병원 또한 문화, 예술 마케팅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바탕은 물론 사람과 예술에 대한 사랑이다. 현재 창원과 김해의 the큰병원 두 곳에서 운영되는 비영리 갤러리인 숲갤러리는 지난해(2014년 9월) 유형근 전시로 지역 내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갤러리로는 최초로 솔드아웃(완판)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직접 아트페어 전시장 등을 발품 팔며 작가를 찾고, 한 해 전에 미리 전시 작가를 선정하며 숲 갤러리 전시를 위한 새로운 작품 제작기간을 주는 박창석 원장의 세심함은,

작가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작품 속에 녹아나고 관객들은 한층 수준 높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가야 더 멀리 계속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박원장은 함께 더 멀리 가기 위해 오늘도 발품을 판다.

내 생애 가장 따뜻한 병원, the큰병원

the큰병원이 생각하는 메세나 활동은 단순한 기부나 지원 개념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메세나 활동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 있는 예술가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기업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가는 메세나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고 폭 넓은 메세나 활동을 고민한다. 몸의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음의 치유라 여기기에 the큰병원은 병원으로는 최초로 3개 단체를 지원하고 우리 지역을 위한 또 다른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선다.

행복한 직원이 좋은 회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폭 넓게 지원한다. 또한 매년 신년과 가을이면 원내에서 클래식 콘서트를 진행하여 환자뿐 아니라 직원과 그 가족들까지도 함께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는 the큰병원. 생기 넘치고 격려와 지지로 소통하는 병원, 병원 임직원과 환자들이 서로 칭찬하는 곳. 구시대적 낡은 유산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기본가치인 家和萬事成(가화만사성)이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모두 관심이죠. 관심에 따라 생명력을 뿜어내기도 하고 죽어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예술계에 더욱 더 치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박원장은 올해 창원과 김해의 숲 갤러리에서 새로운 전시를 기획중이다. 마니아층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대학 출신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이 되어주고 싶어서다. 그저 인연 닿은 분들이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주니 감사할 따름이라는 박창석 원장.

"웃으며 최선을 다하지"는 자기 삶의 모토를 소개하며 경남메세나협의회도 더욱 내실을 다지기를 기원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람에게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활짝 웃는 얼굴 속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한 소년이 보인다.



이 상은 결코 제 개인적인 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환자의 건강을 위해 애쓰는 the큰병원과 직원, 가족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통해 문화, 예술단체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다.

2014년 한해,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애쓴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메세나 대상.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러나 2014년 경남을 빛나게 한 메세나인들의 수상소감을 간략히 들어본다.



문화공헌상

경원벤티크(주) 대표이사 공경열

경남 김해시 장유로에 위치한 경원벤티크(주)는 1987년 경원벤티딩으로 출발을 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선박용 기자재를 비롯한 플랜트 사업 분야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살아오며 다짐한 작은 원칙인 '행복을 나누는 기업문화는 기업경영을 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지역민에게 한번 맺은 인연의 끈을 더 튼튼히 이어가는 고마운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부족한 활동에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되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만큼 조용하고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GYEONGNAM
MECENAT**

Writer 진강숙 | Photographer 이상현



문화경영상

범한산업(주) 대표이사 정영식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공기압축기 분야 세계일류기업' 범한산업(주)은 경남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기업으로도 명성이 높지만 '경주마(馬)'를 통해 행복한 나눔을 전파하는 기업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단순한 사회 환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나눔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문화예술지원을 통한 아름다운 사회공헌과 기업의 지역문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작은 손길이지만 이런 일들이 모여 경남 문화예술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경남의 문화예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문화예술의 풍요로 인한 인생의 여유를 느끼며 생활하는 문화 환경이 하루 빨리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메세나인상

강민구 창원지방법원 법원장

2014년 창원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후, 창원 지방 법원의 법정엔 예술작품이 걸리고 쇠창살이 없어 졌다. 갤러리를 방불케 하는 법정은 딱딱하기보다 작품의 의미로 교감하고 누그러진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부족한 제가 이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2014년을 회고해 보면, 우리나라 근대사법 도입 120년 역사에서 최초로 '예술법정' 개념을 한국 사법부에 도입하고 실천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 예술법정은 무엇보다 출연작가의 정성과 실무 직원의 노력, 대법원 당국 지원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결합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 메세나인 상도 제가 위 세 분야 공덕 있는 분들을 대신해서 받는 것입니다."



Art & Business상

(주)복성산업 대표이사 박환병 & 풍류춤연구소 대표 강동욱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주)복성산업(박환병 대표이사)은 1996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19년째 기반을 다져 온 탄탄한 중견기업이다. '정도(正道)와 상생(相生)의 경영방침으로 창업 이래 단 한 번도 고객과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을 만큼 소통과 타협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으며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위해 바른길을 걸어왔다.

"카다란 강물도 처음에는 깊은 산골짜기 작은 개울에서 시작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으며 삽니다. 더 불어 잘사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죠. 멀고 험해도 가야죠. 천천히..."

2000년에 창단한 풍류춤연구소(강동욱 대표)는 서부경남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경남의 대표적 전통예술단체다. 21세기에 부합하는 창작 작품과 함께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춤을 제대로 복원하여 알리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오랜 시간 춤을 추고 있지만 아직도 어느 춤 한 자락 멋드러지게 출 자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춤은 저에게 동경의 대상입니다. 도와주시는 복성산업에 성실한 공연활동과 감동적인 작품으로 보답해야지요. 좋은 인연 오래 이어가고 싶습니다."



특별공로상

동서화랑 故 송인식 관장

지난 2013년 8월 15일, 향년 88세로 작고한 동서화랑 故송인식 관장은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우리 경남지역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온 미술 운동가였다. 동서미술상을 제정, 24회 2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고 그들은 지금도 예술 활동을 활발히 하며 예술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동서미술상운영위원회에서 수상소감을 전해왔다.

"특별공로상은 그 분의 생애 업적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남은 이들에게 그 뜻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을 당부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서미술상운영위원회에서 송관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좋은 수상자를 선정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 달라는 부탁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책임감있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 사 예 담 촌 |

예로부터 남사마을은 수많은 선비들이 태어나 서당에서 공부하여 많은 수가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내던 학문의 고장으로, 공자가 탄생하였던 니구산과 사수를 이곳 지명에 비유할 만큼 학문을 숭상하는 마을로 유명하다.

현재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된 "남사 예담촌"은 고즈넉한 담장 너머 우리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어 표면적으로는 '옛 담 마을'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내면적으로는 담장 너머 그 옛날 선비들의 기상과 예절을 닮아가자는 뜻을 가지고 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남사예담촌은 변화하는 현재 속에서 옛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배움의 휴식터라 할 수 있다.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직장인

경남A&B오케스트라

경남지역 직장인이 뭉쳐 만든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1호 '경남A&B오케스트라'.
자라온 환경도, 직장도, 성격도, 연주 실력도 모두 다르지만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음악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매주 수요일 저녁,
단원들이 모두 모여 합주하는 그 두 시간을 위해 매일을 하루같이 연습하는 사람들.
그들은 잠을 아껴가며 꿈을 좇고, 꿈에서도 연주를 한다.
결코 꺼지지 않는 자신의 꿈을 위해, 그리고 만인이 꿈꾸는 세상을 위해...
독일의 한 저명한 전자음악가가 "음악은 잠들지 않고 꾸는 꿈"이라고 했던가....!

창 단 식

'경남A&B오케스트라(Arts & Business Orchestra)'는 음악을 사랑하는 직장인들에게 무대를 마련해주고자 경남메세나협의회와 센트랄, 한국문화예술발전연구원이 힘을 모아 창단했다. 그저 음악이 좋아 개인적으로 연주를 하고, 막연히 공연을 꿈꾸던 직장인들을 오케스트라로 모아서 클래식 대중화와 직장인들의 예술 활동 저변확대에 나선 것이다.

경남에 거주하는 직장인 40여 명으로 구성된 경남A&B오케스트라는 2014년 6월부터 모집하여 7월에 결성됐다. 창단식은 결성 3개월만에 창단 기념 연주회와 함께 열렸다. 지난 9월 24일, 경남A&B오케스트라 연습실인 경남대학교 예술관에서 열린 창단식에는 최재호 경남메세나협회장, 이종봉 경남대 대외부총장, 차문호 한국문화예술발전연구원장, 센트랄 강태룡 회장, 이용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후원자들의 격려사에 이어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차문호 원장을, 지휘자로 진주시립교향악단 허준 부수석, 악장으로 센트랄 도현경 단원을 위촉했다. 또한 창단식에 앞서 최 회장과 이 부총장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경남메세나협회와 경남대학교 간의 문화협력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불협화음

오케스트라는 이날 그동안 틈틈이 연습해 온 가브리엘 오보에와 위풍당당 행진곡을 연주하며 창단을 자축했지만, 그간의 열정에 비해 연주 결과는 참담했다. 연습 때보다 못한 연주...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불협화음'이었다. 낯선 무대도 아니고 평소 연습실에서의 연주였건만 관객 몇 사람에게 단원들이 긴장을 한 것. 그리고 생긴 의심과 고민,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 고민과 의심은 길지 않았다. 연습실에 모인 단원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실력을 쌓았다. 첫 정기공연까지 파트별로 모여 게릴라 연습을 하며 기량을 채워나갔고 파이팅을 다짐했다.



A r t s &

B u s i n e s s O r c h e s t r a



정기 공연 . . . 그들의 첫 무대

12월 3일 성산아트홀 대극장. 후원자들과 단원 가족 등 경남도민 800여 명이 참석한 자리. 연주를 준비하는 단원도 자리한 관객도 무언지모를 긴장감에 상기된 표정이다. 지휘자의 손끝이 올라가고 엘가의 위풍당당행진곡이 흐른다. '경남A&B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그렇게 정적을 깨며 첫 공연의 긴장감도 훌훌 털어버린다. 이젠 즐길 시간이다.

이날 경남A&B오케스트라는 엘가의 '위풍당당행진곡',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 짐머의 '캐리비안의 해적',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등 클래식을 포함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영화 음악과 팝송을 연주했다. 단원 조지영이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가브리엘의 오보에' 협연을, 첼리스트 김지혜가 '재클린의 눈물' 첼로 협연을 선보이며 무대를 달궜고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은 웅장하면서도 때로는 낮고 간결한 연주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앵콜 곡으로 오스트리아 신부 그루버가 작곡한 '고요한밤 거룩한밤'을 연주하며 관객과 하나 된 무

대를 만들었다. "경남A&B오케스트라의 첫 정기 연주회는 꿈과 열정이 있다면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최재호 회장의 말처럼 그들은 예술가였다.

주말까지 반납하며 연습과 열정으로 만들어 낸 90분! 관객들은 아낌없는 환호와 갈채를 보냈다. 연구원, 엔지니어, 공무원 등 단원 모두 직장도 동기도 다르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믿고 같은 시간을 보내며 결국 하나의 소리를 만들었다. 음악감독(경남대학교 차문호 교수)과 지휘자(진주시립교향악단 허준 차석), 파트별 강사들과 함께 연습하며 만들어 낸 하모니다. 첫 악기를 사던 설렘을 무대로 완성해 낸 A&B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노력이 빛나는 시간이다.



A r t s & B u s i n e s s



후 유 증 , 오 케 알 이



정기공연 일주일 후, 같이 모여 연습하고픈 마음에 저도 몰래 연습실을 찾았다는 단원. 두 번째 공연을 위해 실력을 쌓고자 학원에 등록한 단원. 타인의 공간이었던 무대가 자신의 공간으로 변하고 나니 책임감이 더 커진다는 단원. 갑자기 찾아온 수요일 저녁... 이제는 오케스트라 연습이 없는 수요일의 저녁 시간을 어찌 보내야 할지 몰라 서로 그리워하며 연락하는 단원들은 그들의 언어로 한참 '오케알이' 중이다. 공연을 위해 연습하던 곡이 아직도 귓전에 맴도는 그들에게 다시 만나 연주할 봄은 멀기만 하다.

경남A&B오케스트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머릿속에선 퇴근 후 땀 냄새 풍기며 연습하던 모습이 두터운 외투를 입고 연습하는 모습으로 오버랩 되고 가슴에선 존경이 솟는다. 음악을 매개로 만나 일과 예술을 즐기는 사람들.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해야 한다는 불리함은 꿈과 열정으로 뭉쳐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달리며 가슴 벅찬 결과를 만들었다.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아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경남A&B오케스트라는 단원 뿐만이 아닌 가족과 동료들에게 이미 삶의 활력이 되었다. 그리고 명실공히 성공한 메세나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첫 정기공연 이후, 요양원 등 소외계층과 기업을 방문해 문화 봉사활동도 펼쳐나갈 예정인 경남A&B오케스트라! 그들은 첫 공연을 잘 끝냈다는 안도감과 다음 공연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잠을 설치고, 매일 밤 무대에 서는 꿈을 꾸다.



e s s O r c h e s t r a



찾아가는 메세나로 경남 곳곳을 메세나로 물들이다

경남메세나협의회는 시·군 단위 기업·예술단체와 지역민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찾아가는 메세나'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최재호 회장을 비롯한 사무국이 직접 산청·함양을 방문해 지역 기업인·예술인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과 예술단체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민을 위한 힐링콘서트 및 지역예술영재 장학금 전달식 등도 함께했다.

Writer 경남메세나협의회 | Photographer 이상현



경남메세나협의회는 경남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위해 10월 7일 산청, 10일 함양에서 '찾아가는 메세나'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메세나'는 기존에 소외계층을 찾아가 공연을 펼쳤던 문화나눔 사업을 확대해 경남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시·군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우호협약을 맺고, 해당지역 기업인과 예술인을 초청해 상호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또한 지역 예술영재에 대한 장학금 수여 및 지역민을 위한 힐링콘서트도 마련된다.

그 첫 대상으로 기업체가 적고,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메세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산청군과 함양군을 선정했다.



7일 산청군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메세나' 첫 간담회에서는 경남메세나협의회 최재호 회장과 산청군 허기도 군수를 비롯해 신선F&V 이영섭 대표, 신화철강 정현숙 대표 등 기업체 대표들과 산청민속보존회 반해경 대표, 산청문화원 이효근 대표 등 예술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순서로 산청군과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산청의 문화·예술사업 발전 및 인재양성 등을 위한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산청군 국악영재 김란이(국립전통예술고) 학생에 대한 경남메세나협회의 장학금 수여가 있었다. 산청군의 최재호 회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 기업체 대표 및 예술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최재호 회장은 "현재 예술지원이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경남이 고르게 문화예술 혜택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개최 동기를 밝힌 뒤, "간담회를 통해 문화예술이 경남 전 지역에 공유돼 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단다"고 전했다.

허기도 군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은 예술인의 기량발휘는 물론이고, 지역민들의 소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오늘 이 교류간담회를 계기로 산청 문화예술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인과 예술인들의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지역에 따른 결연금 지원한도 조정, 출향기업 참여율 제고, 기업의 복수지원, 예술단체들의 활동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최재호 회장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산청문화예술회관에서 산청군민을 위한 힐링콘서트가 열렸다. 경남메세나페스티벌오케스트라(GMFO 대표 이인호)가 밝고 경쾌한 곡들을 연주해 산청에서 메세나의 시작을 축하했다.

10일 함양에서 개최된 두 번째 '찾아가는 메세나'는 함양군청에서 최재호 회장, 함양군 임창호 군수, 함양군의회 황태진 의장, 경남예총 공

병철 회장, 인산가 김윤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호협력을 위한 함양군과 경남메세나협약회의 MOU 체결에 이어, 문학분야 영재인 박다겸(수동중) 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여가 있었다. 함양군수의 최재호 회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 함양지역 기업체 대표와 예술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임창호 군수는 "지리산 기슭에 자리해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이 적은 함양지역에 찾아와 기업과 예술단체의 만남을 마련하고, 또 오케스트라까지 개최해줘서 감사하다"며 "이날의 인연으로 함양 군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치고 저녁 6시부터 GMFO의 함양군민을 위한 힐링콘서트가 상림숲 상설무대에서 열렸다. 함양군민은 물론이고, 물레방아 축제 관람을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까지 객석을 가득 채워 가을저녁 상림숲에서 클래식 향연을 만끽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경남메세나협약회의의 18개 시·군 '찾아가는 메세나' 사업은 10월 산청과 함양을 시작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어가, 내년까지 경남전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각 지역 메세나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경남 전 지역에 문화예술 지원이 고르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다.

즐거운 나눔티켓

문화예술로 온기를 전하다

Writer 경남메세나협회의

경남메세나협회의는 2014년, '찾아가는 메세나와 '즐거운 나눔티켓' 사업을 통해 어느 해보다 활발한 문화나눔 활동을 펼치며 지역민들과 문화예술로 소통했다. 문화나눔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3년에 6건의 사업을 치렀다. 올해는 경상남도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난 6월 남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건의 공연을 성황리에 치렀으며, 나눔티켓의 경우 1,500여 명의 도내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자연사문화 전시티켓을 배부하여 즐거움을 나눴다.

도내 1,500명 어린이들에게 신나는 티켓 나눔!

2월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사회배려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구자연사대탐험전' 전시회 티켓을 배부했다.

매년 소외이웃 어린이들에게 문화체험티켓을 배부하는 '즐거운 나눔티켓' 사업은 올해 경상남도 와 좋은데이사회공헌재단, (주)디렉터스코리아의 후원을 받아 기존보다 수혜의 폭을 넓혔다.

'지구자연사대탐험전'은 12월 19일(금)부터 2015년 3월 1일(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 제1전시실에서 진행된다. 1관은 화석, 천연기념물관, 2관은 곤충관, 3관은 파충류관, 4관은 체험학습관으로

이뤄져 있으며, 총 450여 점의 전시물 관람 및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티켓나눔 사업은 지역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어린이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살아있는 자연과 만나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방향을 유익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티켓배부 대상은 창원육아원, 한빛원, 진해 희망의 집, 동광육아원, 진동아동센터 등에 소속된 어린이들로 약 1천 5백여 명에 달한다.



올해 문화나눔을 통해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경남 곳곳에 알린 경남메세나는 2015년에는 공연 횟수를 더 늘리는 것은 물론 공연대상을 기존의 노인복지시설 위주에서 농어촌 지역 학교나 전통시장, 마을 회관 등으로 대상을 넓혀갈 예정이다. 또한 공연 내용도 클래식 위주의 공연에서 보다 다양화하여 관객의 취향과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공연들을 기획할 예정이다.

나눔티켓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전시를 기획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메세나



클라리넷 선율로 웃음꽃 피어난 남해요양원

6월 25일 남해군 남해읍에 위치한 남해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가 열렸다. 요양원 강당에서 열린 음악회는 15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유니크 클라리넷 앙상블'의 경쾌한 행진곡 "The Circus Bee" 연주로 막이 올랐다. 1부 공연은 유명한 영화음악들로 꾸며졌다. 영화 '올드보이'의 '미도테마', '스팅'의 '엔터테인먼트'

등 주옥같은 영화 음악들을 클라리넷 특유의 풍부한 선율로 연주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2부 공연에서는 양희은의 '아침이슬'을 시작으로 '칠갑산', '무조건' 등 트로트 곡들을 타악기와 곁들여 들려주었다. 익숙한 곡들이 나오자 모두들 노래를 따라 부르며 흥겨워했다.



흥겨운 문화나눔! 하동군 화개면사무소, 밀양시립요양원

10월 21일 하동군 화개면사무소를, 11월 4일 밀양시립요양원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흥겨운 문화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남의 소외지역을 찾아가 경로공연을 개최하여 어르신들이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즐기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 지역 전통예술을 계승

해나가는 풍물단체 '문화두레 어처구니'에서 준비한 이번 공연은 현대적으로 각색한 퓨전 판소리로 시작하여, 신명나는 문동이 탈춤으로 이어졌다. 옹골대 할미·영감 과장에 이르러 할미와 영감의 과장된 몸짓과 익살스런 대사에서 빛어지는 풍자와 해학이 어르신들의 웃음을 자아내며 공연장을 들썩이게 하였다.



4년째 이어진 창원성심원 러브투게더 콘서트!

12월 13일 창원 북면 성심원에서 러브콘서트가 열렸다. '경남첼머쓰사이어티'의 클래식 연주로 문을 연 음악회는 두 시간 동안 다양한 레퍼토리로 이어져 즐거움을 선사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대구가톨릭음악원 뿌에리 칸포레스 청소년합창단의 공연은 '넬라판타지아', '아름다운 나라' 등 주옥같은 곡들을 감미로운 합창으로 들

려주어 객석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이어 평소 접하기 힘든 핸드벨 연주로 '렛츠 탕고', '토토로 OST' 등을 선보여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지역사회배려계층 어린이들로 구성된 '꿈의 오케스트라' 창원과 '경남첼머쓰사이어티'의 합동연주가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암환자들을 위한 치유의 음악회, 덕유산 자연사랑요양병원

12월 16일 거창군 덕유산 자연사랑요양병원에서 치유 음악회가 열렸다. 눈발이 헤치며 달려와 공연을 펼친 '경남첼머쓰사이어티'는 영화음악 등 친숙한 곡들을 연주하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어 바리톤 이종훈 교수의 힘찬 노래가 환자들을 격려했다. 트로트 메들리를 끝으로 한 시간 가량의 클래식 공연이 막을 내렸고, 직원들

의 악기연주에 이어 진해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춤무용단'이 진도북춤, 하렘드림, 워 댄스 등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공연기획을 맡은 경남첼머 김정은 팀장은 "환자들이 너무나도 밝게 웃으며 호응해주셔서 행복했고 오히려 우리가 더 치유 받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랑스러운 노래로 훈훈한 연말! 의령요양원, 양산자비원

12월 17일 의령요양원, 24일 양산자비원에서 훈훈한 연말을 선사했다. 알록달록 한복을 입고 등장한 김해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은 전통민요 '경복궁 타령'을 시작으로 공연의 문을 열었다.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퍼져나가며 요양원은 온기로 가득 채워졌다. 특히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뮤지컬 메들리' 무대를 선보

이자 모두들 감탄하며 많은 박수를 보냈다. 대미를 장식한 '캐롤 메들리'에서 핑크 드레스에 산타모자를 쓰고 등장한 어린이들은 유쾌한 캐롤송을 울동과 함께 선보여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공연 후에는 어르신들에게 안마를 해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국립진주박물관 /course 1

2014년 11월 1일 경남메세나협의회 가족들이 처음 찾은 곳은 <국립진주박물관 30년>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진주박물관이다. 임진왜란 3대 대첩지 중의 하나인 진주성에 자리잡은 이 박물관은 1984년 11월 2일 개관했다.

개관이후 30년 역사를 조명한 <국립진주박물관 30년>전은 박물관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박물관의 역할과 지향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전이다.

도기 바퀴장식 뿔잔(보물 제627호), 정조 어필(보물 제1632-1호)을 비롯하여 100여 점의 전시 중이었는데, 특히 지난 1963년 의령에서 출토된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은 제작연대(539년)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불상으로 경남에서는 처음 공개됐다.

전시장을 나오는 길, 밤새 내린 비로 깨끗이 씻어 낸 가을 고운 빛을 깊이 들이마신다. 여느 해보다 고운 단풍을 마신다.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호, 2호, 3호가 국립진주박물관이 있는 진주성에 있고, 도유형문화재 제5호까지 진주에 있기에 "경상남도의 문화는 진주에서 출발한다."고 단언하는 문화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남제일(嶺南第一)의 형승(形勝)을 다시 한번 눈으로 새겨둔다.



지역문화 사랑, 그 아름다움의 시작 **산청**

Writer 진강숙 | Photographer 이상헌

새벽까지 오던 비가 멎었다.
 산청 목화시배지박물관 뜰은 비 때문에
 서둘러 떨어진 낙엽이 소복하다.
 평소 같으면 손님을 맞기 위해
 깨끗이 쓸어냈을 낙엽이지만
 이날은 메세나포럼 가족을 위한
 배려로 남겨둔 모양이다. 참 좋은 선물이다.
 오랜만에 낙엽을 밟으며
 가을 정취에 한껏 취해갔다.





따뜻한 아름다움의 시작

목면시배유지전시관 /course 2

목화꽃에 얽힌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간택 이야기는 이미 유명하다. 예절도 지키고 품격도 살리면서 추위로 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목화에 대한 찬사다. 하지만 이것도 고려 말 문익점 선생이 붓대롱에 담은 열 알의 목화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다. 현재 국가사적 108호인 목면시배유지전시관 터에서 싹을 틔운 한 알의 목화씨가 아니었다면 엄동설한의 추위로 삼베로 버텼어야 했던 우리 민초들의 삶은 그 얼마나 지났을까?

전시관 내 삼우당 효자비가 눈에 뜨인다. 왜란 당시 모든 이들이 피난을 갔지만 그는 남아 어머니의 묘를 지켰다. 홀로 남아 묘를 지키며 곡하는 모습에 왜적들이 이곳에 기념나무를 세워 해치지 말라 새겨두어 전란에서도 평안했다는 곳. 자신의 이익을 좇지 않고 목화씨를 가져온 마음과 겹치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케 한다. 11월의 초입, 가을이 물든 시간에도 미백과 연분홍의 꽃 자태가 남아 있다. 백성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밤낮으로 기도하던 선생의 마음인 듯 여름부터 서리내릴 때까지 찬바람에도 꽃을 피운 목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산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 유산을 받아주세요. 목화 한송이씩 마음속에 넣어가서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백만송이 마음으로 늘리고 나누세요." 이날 경남메세나포럼 가족을 위해 애써주신 문화관광해설사이자 목면시배유지전시관장인 이영복 선생이 전하는 말이다. 태워도 재가 남지 않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입는 면. 생과사를 함께 하는 목면을 보며 그 빛나는 정신문화유산 앞에 고개를 숙인다.

상처를 어루만지는 아름다움

동의보감촌 /course 3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이 편찬된 지 400년에 1년을 더한 어느 날. 굽이굽은 단풍길을 따라 동의보감촌으로 갔다. 지리산 천왕봉에서 시작된 능선이 동북단으로 내려오다 멈춘 곳에 자리잡은 동의보감촌. 문을 들어서니 어디선가 약초 향이 마음을 푸근하게 한다. 넓은 마당 옆, 마치 임금의 집무실인 근정전만 같은 건물, 바로 동의전이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포임금왕자를 쓰는 왕산 자락에 자리잡아 근정전의 모습을 갖췄다. 둘러보니 간혹 의학정보도 보인다. 두통이 생길 때 누를 수 있는 손바닥 지압점(두점)의 그림을 보며 얼른 기억창고에 새겨 넣었다.

한방 테마공원과 한의학 박물관, 약초 돌레길, 한의원, 탕제원 등을 갖춘 산약초타운과 한방 휴양림 등이 있는 곳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보감이다. 책 속에 미래가 있다고 했던가?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 이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책의 일목요연함과 예방법과 해부도보다 주목을 끄는 부분은 책속에 담긴 철학이다. 단순한 의학 시술이 아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 정신문화의 세계까지 책속에 담겼기 때문이다.

메세나포럼 가족들의 인기를 받은 또 하나의 명물, 기를 받으면 소원 성취한다는 세 개의 바위다. 동의전 뒤편의 <귀감석>과 뒤편 언덕의 <석경>, 동의전 앞의 <복석정> 세 곳을 돌며 하늘과 땅의 기운을 두루 받은 경남메세나포럼 가족. 새해엔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며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같이 기원해 본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내원사 /course 4

아홉 구비 산길을 돌아가니 양갈래 내가 합쳐지는 곳에 내원사가 앉아있다. 천왕봉아래 무재치기폭포에서 이어지는 장단골과 마지막 빨치산(정순덕)이 총상을 입은 채 생포된 내원골이 맞닿는 곳이다. 신라 태종 무열왕 때 무염국사가 창건하여 덕산사라 했지만 원인모를 화재로 전소되었다. 이후 방치되다 1959년경 원경스님에 의해 다시 재건되어 내원사라 이름 붙였다. 규모는 작지만 경내엔 세월이 묻어나는 석탑이 역사를 지키고 섰다. 우리나라 문화재 보물 1113호인 전형적 신라의 3층탑. 빨치산과의 전투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그곳을 찾는 이로 하여금 질곡의 역사에 숙연케 한다.

또 한 가지 보물. <석남암수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 1021호)이다. 석남암 터 수풀 속에 있던 비로자나불상이란 뜻이다. 신라의 어느 날, 불심 깊은 어느 석공의 손끝을 떠나 높은 곳에 모셔졌을 불상도 세월의 풍파를 그냥 넘어가진 못했다. 수풀 속에 나뒹굴며 무더지고 깨어진 모습으로 못 객을 만나는 <석남암수비로자나불좌상>은 부처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따스 햇살 속에 가을을 주렁주렁 매단 곳감과 장단골 계곡에 걸린 반야교의 젖은 낙엽... 화려하진 않지만 온통 다홍빛 자연으로 물들인 내원사를 벗어나며 마음까지 고요해진다.

고가와 돌담길이 아름다운

남사에담촌 /course 5

어스름 해가 넘어가는 시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꼽히는 남사에담촌을 찾았다. '옛 담 마을'이란 의미를 가진 곳. 키를 훌쩍 넘는 높은 담장엔 이젠 앓을 떨궈버린 담쟁이가 예스러움을 더하고 전통한옥과 어우러진 돌담길과 고목에 마음을 뺏겼다. 메세나포럼 가족이 둘러본 골목 안 경주 최씨 고가는 전형적인 사대부집 형태를 간직한 집이다. 남정네들의 공간인 사랑채와 안채를 잇는 긴 줄. 그 끝에 방울을 매달아 안채에 연락을 했던 원시 형태의 초인종 이야기를 들으며 선조의 재치에 웃음이 난다. 여인들의 놀이터였던 뒤란엔 가을꽃이 애뜻함을 더하고 복(돈)이 들어온다는 속설에 이젠 반들 반들해져버린 거북 문고리는 술한 서민들의 기원이 담겼다. 오랜 세월을 견딘 검은 기와, 흙과 돌로 지어진 옛 담.. 세월 너머 옛사람들의 삶을 살짝 엿본 느낌이다.

한옥에서의 클래식 음악회는 또 어떤개. 어둠이 짙어오는 한옥 마당에서 사진 촬영을 위한 조명으로 악보를 비추며 연주하는 솔리스트양상블의 클래식 현악 4중주. 익숙한 모차르트의 세레나데(아이네클라이네나흐트뮤직)와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와 우리 민요 도라지가 아름답게 흘렀다. 한 곡 한 곡 연주될 때마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모여들고 누구랄 것 없이 흥에 겨워 찬사를 보냈다. 어둠 속 작은 조명 밝힌 야외 연주. 아름다움이 한껏 고조된 밤이었다.(힘들었을 연주자들의 수고에 감사를 전한다)

제8차 경남메세나포럼 산청문화탐방. 화려하진 않지만 사람을 생각하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고 담았다. 공간이라는 것은 사는 이의 정심세계를 닮아가는지, 어느 한 곳 가벼이 넘어갈 수 없었던 곳 산청. 경남메세나포럼 가족들의 아름다운 시간도 그곳에 머물러 있다.





01.

겨울이 다가오던 11월 중순의 어느 일요일,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에 위치한 (주)구구 앞마당에는 작가들이 모여 며칠째 벽화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주)구구 + 경남전업미술가협회

조건없이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

Writer 경남메세나협의회 | Photographer 구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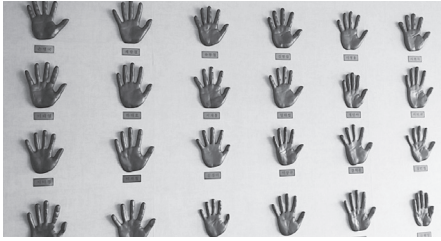
구구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경남전업미술가협회 천원식 회장을 비롯하여 협회 소속의 임덕현, 김덕천, 우순근 작가다. 작업 복장과 도구를 제대로 갖춘 채 벽면 구석구석까지 정성을 들여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삭막하던 회색 벽에 색감이 더해지고 생기가 번져나갔다.

마침내 드러낸 모습은 깊고 울창한 산자락 아래 펼쳐진 강가의 평화로운 풍경이다. 작가들은 한 장의 풍경사진을 들여다보며 고민하고, 다시 칠하곤 했다.

천원식 회장은 "산청 경호강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와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이 생생히 살아있는 곳이죠. 이 딱딱한 콘크리트 담장에 그 아름다운 생명력을 그대로 옮겨놓고 싶었어요"라며 작품을 설명했다.

(주)구구는 전자기기를 생산·조립하는 작은 기업이다. 하지만 회사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생각치도 못한 거대한 핸드프린팅 동판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회사는 2000년에 창립했고, 점점 성장하면서 2011년에 지금의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 당시 저를 포함한 구구 전 직원 47명의



손 모양을 본 따서 만든 작품이에요. 매일 저 작품을 볼 때마다 초심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해요. 직원들도 이 모든 것을 함께 이뤄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방문하는 고객들은 사연을 알고 감동 받았다고 말하더군요"라고 이재철 사장이 제작배경을 설명해주었다. 당시 이재철 사장은 예술에 문외한이었지만, 그저 예술이 직원들의 감성을 풍부하게 가꾸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핸드프린팅 작품을 의뢰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메세나를 시작했다. 이후 경남메세나협의회를 통해 경남전업미술가협회와 결연을 맺고 후원하면서 본격적인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펼쳐나갔다.

이번 벽화 그리기 작업은 천원식 회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기업에서 아무 조건없이 생업으로 그림을 그리는 열악한 환경의 전업작가들을 후원해주는 것에 보답하고자 재능을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철 사장은 "준 것에 비해 너무 과하게 보답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전하며, "분명 직원들이 매일 이 벽화를 보면서 자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정기를 받아 회사생활에 활기를 얻을 것 같다"며 작가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구구의 메세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매년 연말이면 어느 회사처럼 전 직원들과 함께 송년회를 열어 한 해를 마무리 해왔는데, 올해는 특별히 문화송년회로 꾸며다. '아르끼 챔버 현악5중주를 초청하여 클래식 연주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맥린의 '탱고 시리즈', '비발디 사계' 중 '겨울', 헨델의 '올게 하소서' 등의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며 구구 직원들은 감미로운 분위기에 푹 빠져들었다.



특히 마지막에 '캐롤 메들리가 연주되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살아나 모두 흥겨움에 취했다. 배미영 사원은 "평소 클래식 연주를 감상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음악들을 마음껏 들을 수 있어 행복했고, 따스한 송년회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아요"라며 기뻐했다.

구구의 사훈 '즐겁게'처럼, 올 한해 구구 임직원들은 메세나와 함께 즐겁게 한해를 보내고 있었다.





02.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하던 8월 말, 김해 구지로 김해예술 갤러리에서는 조서영 작가의 '문턱'전이 열리고 있었다. 갤러리에는 조서영 작가와 (주)ONE 이종호 대표이사가 관람객들과 함께 전시장을 돌며 작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주)ONE

김해예술에 피어나는 꽃

Writer 경남메세나협의회

지나가던 일반인이 들어와 보아도 아무 거리낌 없이 감상할 수 있을 정도로 작품들은 사랑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였다. 유달리 화사한 꽃 그림이 많은데, 이는 작가가 지향하는 삶과 닮았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예술을 시작하여 작품 활동에 열정적으로 매달려 온 조서영 작가야말로 인고의 시간을 거쳐 활짝 피어난 정열의 꽃이다.

조 작가는 부산 sea&see 갤러리 초대전 등 10여 차례 단체전에 참가했으며, 재능기부자로도 활발히 활동해왔다. 김해연지성당, 남해성당 등에 그려진 그림들 역시 재능기부한 작품들이다. 지역아동센터의 미술봉사와 심리치료 교사로도 오랜 기간 활동해왔다. 하지만 높은 뜻을 가지고 온 열정을 다해도 힘이 부치곤 했다. 더 잘하고 싶지만 잘 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이

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이가 (주)ONE 이종호 대표다. 조서영 작가의 열정과 그림솜씨에 감탄한 이 대표는 비싼 액자 값을 지원해주고, 마음에 든다면 그림도 구입해주었다.

"경제적 지원도 고맙지만, 작품 활동하다가 기운이 빠질 때마다 힘내라고 격려해주실 때가 제일 고맙고 큰 힘이 돼요"

김해의 대표적 환경폐기물처리업체인 (주)ONE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호 대표는 문화예술이아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정화해나가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때문에 지역작가 후원을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메세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현재 경남메세나협의회 감사로 활동하며 협의회 운영을 적극 돕고

있으며, 12월 공연을 앞두고 자금이 부족하여 공연 준비에 어려움을 겪던 김해지역 플룻전문 음악단 체인 이프양상블을 추천받아 결연을 맺었다. 지원 단체가 돈 걱정에서 벗어나 음악에만 전념함으로써 김해시민들에게 멋진 공연으로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은 것이 이 대표의 진정한 바람이다.

"김해는 뛰어난 문화예술 환경에 비해 서포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저라도 나서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예술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지역예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며 시원스레 포부를 밝히는 이 대표 덕분에 앞으로 김해에는 문화예술이 구석구석까지 활짝 피어날 것 같다.



11월 어느 저녁, 진해 자은동 예인여성병원 2층 로비에서는 작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오브제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적이면서도 강렬한 느낌의 작품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서수정 작가의 두 번째 개인 전시회가 예인여성병원에서 열린 것이다.

03.

예인여성병원

치유를 담은 아름다운 동행

Writer 경남메세나협의회

서수정 작가는 대구예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서울, 부산 등에서 청년작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재 진해에 거주하며 진해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녁 6시 30분 병원 로비에서 시작된 오픈식에는 예인여성병원 정경호 원장을 비롯하여, 이번 전시를 주선한 최희숙 창원아트센터 관장과 이혜영 진해미협 부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병원 임직원들과 입원중인 산모들도 자리를 가득 메웠다. 특히 산모들은 병원에서 전시회를 보는 것이 신기한 듯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색색깔의 천을 실과 바늘로 꿰매고 연결하면서 제가 희망하는 일들과 일상들을 그려내고 있어오라며 수줍게 작품세계를 설명하기 시작한 서수정 작

가는 천연염색을 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시절부터 은은한 느낌의 천연염색천을 좋아했고, 작품소재로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경호 원장을 비롯, 작품에 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누군가 작품들의 주요소재로 등장하는 부엉이의 의미를 묻자 "제 작품에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부엉이는 우리나라에선 인식이 좋지 않지만 서양에선 지혜의 상징이라 알려져 있어 집집마다 이쁜 부엉이들이 많다고 해요. 전 아주 장식적이고 눈매가 카리스마적인 부엉이를 좋아해요"라고 조곤조곤 답했다. 연신 미소 지으며 서수정 작가의 말을 경청하던 정경호 원장은 "서수정 작가의 작품 덕분에 병원의 산모들에게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는 것 같다. 창원아트센터 덕분에 매달 눈이 호강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메세나 후원을 약속했다."

평소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왔던 예인여성병원은 같은 지역의 창원아트센터와 2년째 메세나 결연을 맺고 센터운영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창원아트센터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병원에 꾸준히 전시회를 열어 병원 임직원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는 물론 산모들의 태교에도 큰 도움이 되어 주고 있다. 병원은 이러한 결연활동을 통해 이미지가 제고됨은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해의 미술 저변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창원아트센터는 향후 산모들을 위한 미술강연과 체험교실을 열어 일반인들도 쉽게 미술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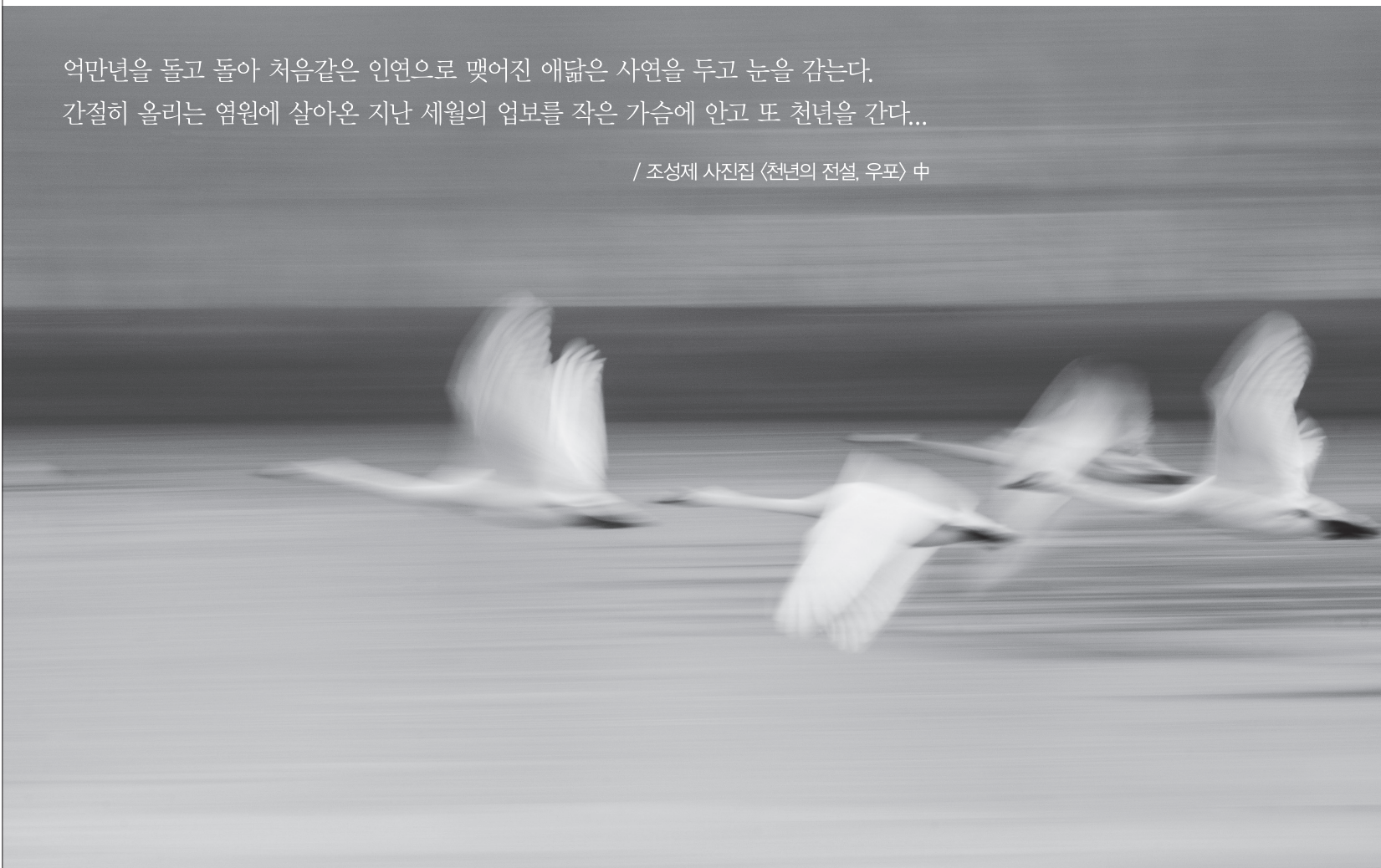
무채색에 담은 시간의 두께

Writer 진강숙 | Photographer 이상현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사진예술로 보여주며, 지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낸 조성제 대표. 기업을 운영하며 좋아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어 감사할 뿐이라는 그는 아직도 우포의 아침을 보여 마음이 두근거린다. 저 멀리 얼어붙은 동토의 하늘을 가르고 날아온 새... 지친 날개를 쉬게 할 따스한 늪... 기업가이자 환경사진작가인 '조성제'. 그만의 시선을 통해 보여줄 또 다른 습濕을 기다린다.

억만년을 돌고 돌아 처음같은 인연으로 맺어진 애닦은 사연을 두고 눈을 감는다.
간절히 올리는 염원에 살아온 지난 세월의 업보를 작은 가슴에 안고 또 천년을 간다...

/ 조성제 사진집 <천년의 전설, 우포> 中



천년의 전설 우포를貪하다

2014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첫날. 창원시에 소재한 경남스틸내 송원갤러리에서 조성제 사진전·출판기념회가 열렸다. 환경 사진작가로 잘 알려진 조성제(원광종합건설(주) 대표) 작가의 여섯 번째 사진전 <천년의 전설 우포(UPO, A LEGEND AS OLD AS TIME)>은 조대표의 지난 5년간의 고민의 시간을 엮은 것으로 동명의 사진집으로도 발간했다. 그는 1억 4000만년의 시간을 껴입은 우포늪, 태곳적 언젠가는 바다였던 그리고 언젠가는 단단한 대지로 변할 수도 있는 우포의 21세기를 기록하는 중이다. 물속으로 스밀 듯 날아가는 날갯짓의 흔적을 탐하고 점 같은 한 마리 새의 범할 수 없는 무게감을 느끼며 그가 만든 전설 속으로 빠져든다. 그리고 무채색 우포의 새벽 안개는 밤과 낮을 잇듯 과거와 현재를 이으며 사물의 경계를 허물고, 시공간을 허물며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전설을 만들게 한다.

.....그냥 생활

그의 전시는 언제나 목표가 뚜렷하다. 경남 장애인재활협회 회장직을 맡으며 그의 전시는 장애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다. 주남저수지를 담은 작품들로 5천만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장애인예술인을 지원했으며 이번 우포 전시의 수익금도 모두 장애인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쓰인다. 경남메세나협의회와 결연을 맺은 2008년부터 해마다 빠지지 않고 권해 온 한 가지! 바로 전임 직원과 임직원 가족들이 분기별로 한자리에 모여 지역예술단체들의 공연, 연극, 전시회 등을 함께 관람하는 일이다. 봉사와 기부가 습관이다. 이전 문화생활도 습관이 되었다. 대표이사의 동기 부여에 수동적으로 따라왔던 직원들이 올해엔 먼저 나서서 문화송년회를 하라고 나설만큼.

GIPF in 창동

경남메세나협의회를 통한 결연지원중인 경남 사진학술연구원(원장 김관수)의 '경남국제사진페스티벌(GIPF: Gyeongnam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은 2015년 새로운 변신을 앞두고 있다. 2015년 15회를 맞는 경남국제사진페스티벌은 오랜 기간 역사성을 이어나가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정을 받았다. 이제는 사진 분야도 세계시장이 통합되면서 그림 못지않은 관심을 받는 시점이기에 경남국제사진페

스티벌을 통해 우리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싶어졌다. 국내의 '동강 사진축제'나 더 나아가 프랑스의 '아를 국제 사진축제'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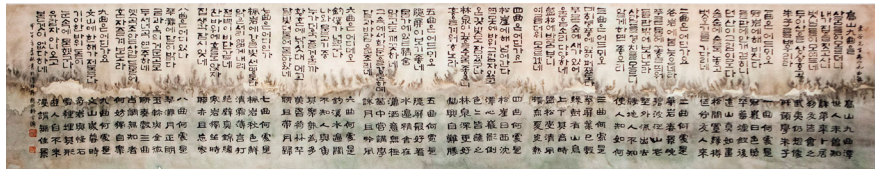
인구 4만의 소도시지만 사진축제 시기엔 각국의 사진예술가들이 모여 세계적인 명성을 이어가는 아름답고 발길 뜬 창동에 사진을 입히고 싶은 것이다. 그는 사진전이 이름을 알릴수록 대한민국 경남 마산의 '창동예술촌'이라는 공간도 충분히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조성제 대표의 또 한 가지 소망은 우리 지역 출신 원로 작가들의 작품을 조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역민들에게 사진을 예술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마련하고 우리지역의 역사성을 지닌 문화예술로 한 차원 높이고 싶다.



漢詩! 조선의 가을을 거닐다

Writer 진강숙 | Photographer 이상헌

2014년 11월,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漢詩(한시)의 유혹에 빠졌다.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 듯도 하지만, 뭐 어때랴. 곁들인 해설에 감동하고 곱게 물들인 한지에
반하면 그만이다. 창원 중앙동의 복합 문화공간 '갤러리 필'에서 열린 서예가 박금숙(창원예총 회장)의
'漢詩-조선의 가을을 거닐다'展을 보며 저 깊이 가라앉은 감성을 깨워낸다.



가을 그리고 달빛

올해 경상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자이자 창원예총 회장으로 활동하는 서예가 박금숙의 한시는 조선시대 작가들의 작품이다. 가을, 주로 달을 노래한 시를 보며 마음은 당연히 시린 가을 하늘의 달빛을 쫓는다. 정도전, 이이, 이항, 허균, 정약용 등 조선시대 한시 작가 16명이 노래한 스물다섯 편의 가을 시. 논어와 대학을 주제로 한 지난 전시와는 확연히 달라져 낭만이 가득 찼다. 아름다운 가을날의 정서를 담은 한시는 박금숙만의 전서체로 새로운 예술로 재탄생 했다. 글(한자)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서예를 극복하기 위해 글자의 조형성을 강조하고 현대의 정서에 맞게 번역한 시가 발길을 붙든다. 직접 겹치고 바르며 효과를 낸 한지 위의 시는 그래서인지 작품마다 다양한 시각적 자태를 뽐낸다.

순수에의 동경

"글과 책은 그냥 나이자 스승이고 벗이다." 박금숙 회장은 책과 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도 가슴 설렌다며 눈가가 젖어든다. 글은 아무리 읽고 써도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고 동경의 대상이다. 열여덟부터 쓴 글이 성에 차지 않아 결혼도 포기하고 먹을 갈고 글을 쓴 박금숙 회장은(이런 그이를 이해해 주는 남편을 만나 늦은 결혼을 했다) 글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인해 위장병도 얻었다. 자신이 추구하는 일은 해내고야 마는 강한 사람이지만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금방 눈물이 흐르는 순수한 사람이다. "맑은 사람만이 붓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말로 시류에 타협하고 안주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한다. 비록 상처가 될지라도 그들의 기나긴 작품 활동을 디자인 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애정어린 마음이다.



“
70즈음이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만큼..
그런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면
아무 조건없이 사회를 위해
재능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작품이 무르익도록
더 많이 고민해야겠죠. ”



결연기업과의 동행

박금숙 회장은 인연이 닿으면 좋은 점을 먼저 보고 결연을 맺으면 임원진보다 실무진과 만나며 그들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돌려줄까를 고민한다. 주고받는 사람이 서로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소중한 인연이 오래 이어진다고 믿는 까닭이다. 지원금이 약소하다며 사양하는 기업을 설득해 직원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기업의 허락을 받아내는 노력은 기본. 미술과 나는 거리가 멀다 여기던 결연기업 직원들도 직접 판화를 찍고 양초와 부채를 만들다보니 마음이 열리더라고. 한걸음 더 나아가 박금숙 회장이 몸담은 동락문화예술연구회와 결연기업인 (주)환웅정공 직원가족들은 사회봉사활동에 나섰다. 경남지역의 벽지 초등학교를 찾아다니며 미술체험교실을 열고있는 것인데 해를 거듭할수록 결연기업 직장인들에게 가족애와 애사심이 더해진다는 평이다.

동락문화예술연구회는 연말이면 명언을 쓴 액자를 기업에 선물한다. 어떤 명분으로든 결연기업 직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고 싶어서

다. 그렇다보니 이젠 동락문화예술연구회 회원이 개인적으로 기업에게 작품을 기증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간다.

박금숙 회장이 몸담은 또 다른 조직인 창원예총과 유니온엔지니어링(주)(류재기 회장)은 문화나눔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2013년엔 미술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작가들에게 돌려주고 올해엔 문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췄다. 지역 작가들의 책은 메이저 작가들의 책에 비해 유통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하기에 지역 기업인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우리 지역 작가들을 소개하고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잔치 마당을 열었다. 지역 작가들의 책 500여 권은 그렇게 우리 지역 기업과 소외계층에게 전달됐다. 분야를 막론하고 열심히 작품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기를 바라는 박금숙 회장은, 우리 지역 예술계의 따뜻한 어머니다.

스폰서십 아닌 파트너십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은 누가 누구를 후원하는 스폰서십이 아닌 서로 동등하게 상생하는 파트너십으로 가야한다는 박금숙 회장은 경남메세나협의회를 만나기 전부터 오랜 봉사활동을 해왔다. 동락문화 예술연구회원들과는 해마다 6천장의 연하장을 만들고 직접 글을 썼다. 그 수익금은 모두 우리지역의 복지사각에 있는 읍면동의 어려운 분들에게 쌀 한가마니로 바뀌어 전달됐다. 힘든 시절을 겪어본 사람은 안다. 양식이 바닥을 보여 갈 즙음의 두려움과 살 한 톨, 연탄 한 장의 고마움을... 시리고 두려운 가난한 가슴에 감사함을 채우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시대의 진정한 예술인 박금숙 회장.

기업이든 예술단체든 한 번에 크게 하는 것보다 형편에 맞게 꾸준히 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박금숙 회장은 우리 지역의 메세나가 한층 더 도약하기를 바란다.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이미 한국메세나를 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2백 곳이 넘는 결연기업과 예술단체들을 아우르며 더욱 세심한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해 실무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첫 번째 이유는, 기업의 사회 환원은 철학이 있어야하므로 메세나 결연기업들을 꾸준히 관리함은 물론 새로운 기업들의 메세나결연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후원 작가와 단체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빈도와 경중의 차이일 뿐 어느 시대에나 부도덕은 있기 마련. 기업과 도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메세나 기금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스로 예술인이며 창원지역 예총을 이끌어나가는 입장이기에 더욱 투명하게 쓰이기를 바라는 박금숙 회장의 마음 씀이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기업과 예술단체와 경남메세나협회의 세 축이 트라이앵글처럼 돌아가는 그림을 그린다. 공연장과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직접 결연을 맺고, 메세나 회원기업들은 현장에서 직접 할인혜택을 받거나, 문화예술인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기업에 문화의 색채를 입혀 기업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고 싶다. 이유는 한가지다. 산업사회에서 기업이 건강하지 않으면 예술도 없기 때문이다. 문화 예술단체가 직접 나서기보다 경남메세나협의회가 기업과 예술인 사이의 가교로 사업을 이끌고 지원하며 기업과 예술이 어우러진 상생의 문화운동이 불붙기를 꿈꾼다. 그러나 박금숙 회장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은 없다. 그저 우리 지역 기업과 문화 예술인들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바람이다.

"70즈음이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만 큼... 그런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면 보수 없이, 아무 조건없이 사회를 위해 재능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작품이 무르익도록 더 많이 고민해야겠죠."

지금도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기 위해 고민하는 박금숙 회장을 보며 전시장에서 읽었던 한시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밝은 달이 책상에 깃든다던... 작품을 위해 뽀얀 화선지를 물들이고, 향불로 지지고, 걸을 뜯고 풀며 정성을 들이듯 메세나를 위해서도 많은 시간 정성을 여고민하는 그의 마음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계의 앞날에 마치 밝은 달처럼 깃들어 있다.

메세나인

메디치코리아
이재철 대표

한국의 메디치 가문을 꿈꾸다

Writer 진강숙 | Photographer 이상헌

경남메세나협약회가 발족되던 2007년 즈음, 이 생소하고 낯선 단어에 사람들은 궁금해 했다. 그러면 이야기의 무대는 늘 이탈리아의 피렌체로 옮겨가 당시의 교회와 상인들이 문화예술을 지원했던 히스토리를 설명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메세나가 무엇인지..

한발 더 나아가 시민 개개인이 모여 메세나 활동을 주도하기도 한다.

창원 지역 개인메세나 활동의 중심에 메디치코리아가 있다.

메디치상

르네상스 시대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꽃 피울 수 있었던 배경엔 '메디치(Medici)' 가문이 있었다. 메디치 가문은 금융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조각가, 철학자 등 예술가와 인문학자를 후원했고, 그의 후원을 받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보티첼리 등은 당대 최고의 예술 거장이 됐다. 그리고 시대와 장소를 옮긴 2011년 창원 제2의 메디치 가문을 꿈꾸는 이들이 나타났다. 바로 '메디치코리아다. 문화의 대중화를 통한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법무법인 미래로' 이재철 대표변호사를 회장으로 CEO와 법조인, 교수, 의료인 등 미술 애호가 20여 명의 회원이 모여 메디치회를 발족한 것.

메디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전업미술작가를 대상으로 메디치상을 제정, 수상하고 있다. 수상자에게 해외 개인전을 지원하고 우수미술가상에게는 상금이 주어진다. 세계 미술의 중심지에서 열리는 해외전시 비용일체와 항공권과 체재비, 국내 전시 1회까지 지원한다는 소식은 한 해 만에 입소문을 탔고 이제는 많은 미술작가들의 로망이 되고 있다. "모든 상의 권위는 공정성과 부상(副賞)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재철 회장. 공정성을

위해 심사인단은 글로벌 저명인사들로 구성했다. 결국, 메디치상을 수상한 작품은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준이 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자신의 작품을 세계 미술시장의 중심에 선보이니 메디치상은 당연히 작가들의 희망이 되고 수상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당장 그림 한 두 점 사는 행동보다 세계시장에 '이런 멋진 작가가 있습니다.' 하고 내보이는 것, 세계인들이 그 작가를 알아가고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메디치코리아의 섬세하고 실질적인 후원의 바탕에는 작가보다 더 작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재철 회장의 철학이 녹아있다.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재철 회장은 모든 이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자신의 이름을 담으면 열심히 한다고 한다. 열심히 하다보니 그 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고 그러다보니 계속할 수 밖에 없더라는 이재철 회장. 그는 자신이 속한 단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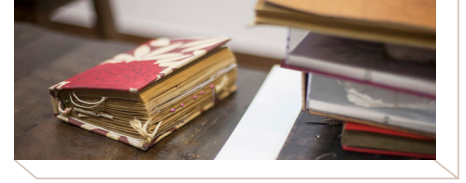
금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우리 지역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을 대폭 늘리며 본인 스스로 33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었고, 경남번호사협회장을 지내며 우리 지역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법률 서비스망을 만들어 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모든 일의 공은 실무진에게 넘기고 수많은 성과는 운으로 돌리며 몸으로 솔선수범하고 투명한 조직을 표방하는 이재철 회장의 모습에 신뢰와 존경이 느껴진다. 매사에 책임감이 강한 그지만 책임감 보다는 먼저 즐길 것을 권한다. 작가들과 만나면서 회원들은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세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목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작가들은 잠재적 소비자들의 미술에 대한 이해도와 호감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미술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이재철 회장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림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작은 촛불을 하나씩 켜나가는 중이다. 결코 서두르지 않으며..





“ 당장 그림 한 두 점 사는 행동보다 '세계에 이런 멋진 작가가 있습니다' 하고 내보이는 것, 세계인들이 그 작가를 알아가고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



내가 만드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책

북 아 트

Writer 정강숙 | Photographer 이상현

Book Arts!

들어본 용어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역부족이다.
지식백과사전을 검색해 본다.
'예술의 한 장르로 지식을 전달하는 책과 예술과의 만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있던 책을 리폼하는 개념이나
다이어리나 노트를 직접 만드는 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책과 예술의 만남이라니, 일단 만나보자.



보는 순간 갖고 싶은 책

좀 더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북아티스트를 만나보기
로 하고 창원 상남동의 '홍숙팩토리' 화실을 찾
았다. 한 눈에도 감각적인 디자인을 느낄 수 있
는 넓은 공간의 책상 배치가 인상적이다.

북아트의 개념만 얼핏 잡고 간 기사를 위해 김
지숙 작가는 '百聞이 一見'이라며 북아트
작품을 수북히 내민다. 테이블에 펼쳐진 다양한
북아트 작품들은 보는 순간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창작욕이 불끈 솟는다. 북아트 작품들은
단순히 디자인만 예쁜 책이 아니었다. 입체적인
그림과 색채로 가득한 책은 이야기를 상상하게
한다. 펼치는 방향이 다르고 입체 사이를 들여
다보며 보는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책.





B o o k A r t s

이 단어가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초다. 1973년 〈스튜디오 인터내셔널 Studio International〉 7, 8월호의 칼럼에서 뉴욕 근대 미술관 사서인 클라 이브 필롯(Clive Philpott)이 처음으로 언급했다. 다양한 작업으로 예술적 한계를 느낀 예술가들이 책이라는 소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오브제(object 여러 가지 재료), 콜라주(collage 붙이기) 등을 이용한 예술적인 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티스트 북이라 부른다. 이미 존재하는 책을 재구성 혹은 재편집 한다가보다는 독창적인 하나의 예술작업으로써 책을 만든다는 의미다.

역사와 흐름보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한가지다. 북아트와 일반 책과의 차이다. 북아트가 독창적인 예술작업이 목적이라면 일반 책은 지식 전달이 목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북아트는 책의 형태(구조) 또한 독특하다. 일반적인 직사각형의 종이책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작가의 역량과 아이디어에 따라

제본방식과 기법이 무한대로 다양하다.

북아트가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기까지 수많은 작가들의 노력이 숨어있다. 여러가지 판화, 회화 기법과 작가 본인에 의한 1인 독립출판, 전통 바인딩, 개념예술, 새로운 매체 연구, 실험적인 음악, 정치적 예술 운동과 설치가의 작품, 전통적인 삽화북인 리브로 다티스트(프랑스어로 예술가의 책이라는 뜻) 등의 예술전반 영역의 실험들이 모여 발전했다.

페이퍼 커팅과 날짜스탬프 찍기, 반복적으로 교차 접지되는 구조들로 이루어진 작품이 다가 아니다.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수강과 취미 모두 가능한 장르이기에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북아트. 사람마다 인생이 다르듯 저마다의 생각이나 느낌, 지식을 담으며 하루하루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북아트의 매력에 흠뻑 빠진 하루였다.



김지숙 / 홍숙팩토리화실 대표

창원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
(사)한국미술진흥협회 경남지부장

055. 284. 5385



시서전 가을, 결로 만나다

Writer 진강숙 | Photographer 구제영

경남여류문학회와 서예부문 국전 초대 작가들이 만나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 시서전 『가을 결로 만나다』. 예술장르 가운데서도 격조 높은 시와 서예가 만난 전시회는 이름부터 감각적이다. 시와 서예가 만난 가을 결은 얼마나 멋스러울까?

2014년 9월 11일 저녁. 창원외의 대우백화점 지하. 서점 한 칸이 북적이다. 시서전 『가을 결로 만나다』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인 우수AMS와 메세나 결연을 맺은 경남 여류문학회의 시가 서예 국전 초대작가 6인의 서예를 입고 시서전으로 탄생했다. 기업과 문단단체의 행사지만 문화를 더 나누고픈 마음에 서점과 맞닿은 공간을 선택한 것. 전통 서예 기법을 벗어난 캘리그래피 작품으

로 더 맛깔스러워졌다. 그림인 듯 문양인 듯 시의 정곡을 뽑아 낸 서예가들의 작품을 보며 글 짓고 쓰는 것이 닮았다 싶다. 글을 보니 글 쓴 사람 닮고 글자도 닮았다. 사람까지 닮는다.

창립 첫해부터 올해까지 24년째, 한해도 거르지 않고 문학집을 발간하며 열심히 활동하는 경남여류문학회와 우수AMS는 경남메세나협의회를 통해 3년째 결연중이다. 결연 첫해엔 시화전을, 지난해엔 시집을 내고 올해, 새로운 도전을 했다. 시인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서예가들(곽봉련, 김미정, 김정옥, 박금숙, 윤판기, 이병도)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성격도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와 수필을 쓴 작가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가능

한 일이었다. 전시장에서 처음 만난 여류문학회원들과 서예가들은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과 시를 만난 느낌,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표현해 낸 작품들을 보며 서로의 장르를 넘나들었다.

문학회 회원의 시 낭송과 경남대 음악교육과 학생들의 축하연주가 한층 행사 분위기를 북돋운다. 음률에 맞춰 고개 끄덕이며 "여긴 참 살만한 곳이다.." 생각한다. 경남메세나협의회를 통해 어렵지 않게 문화생활을 접하는 행운을 누리니 말이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 자리를 뜬 조용해진 전시장. 꽃살문이 물결에 어른거리는 작품이 눈과 발길을 사로잡는다. 배소희 회장의 작품 앞에서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누군가를 업어준다는 것은
 약국의 흐릿한 창문을 닦듯
 서로의 눈동자 속에 깬
 슬픔을 닦아주는 길
 틀어진 경혼을
 자루에 담아주는 길

〈업어준다는 것 / 박서영〉 中



문화나눔 문학토크콘서트

Writer 진강숙 | Photographer 구제영

추석 연휴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9월 12일 금요일 저녁, 창원 '뿔 갤러리에선 메세나 잔치마당이 열리고 있었다.

창원예총(회장 박금숙)과 결연기업인 유니온엔지니어링(회장 류재기)이 함께 만든 '문화나눔 문학토크콘서트' 해가 갈수록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문인을 응원하는 반가운 행사장을 찾았다.

지역 기업 CEO와 예술인들을 초청한 한가위 메세나 잔치 'Arts & Business - 문화나눔 문학토크콘서트'는 기업은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예술은 기업에게 창조경영 마인드를 일깨워주는 지

역메세나 운동의 일환으로 열렸다. "아무리 좋은 책을 발간해도 지역 문인이라는 이유로 독자들의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이들에게 창작 의욕을 북돋워 주기 위해 마련했다."는 박금숙 회장의 말처럼 이날 콘서트에 참가한 기업 CEO들은 지역 문인들이 출간한 도서를 현장에서 구입하고, 구매한 책은 기업이 근로자와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도서구입 약정기증서에 서약했다.

LG전자 조성진 사장이 대담자로 초청돼 세계시장 곳곳을 누비며 개척한 해외시장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 성장엔진, 기업문화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강연했고, 이벨리트리오 현악 3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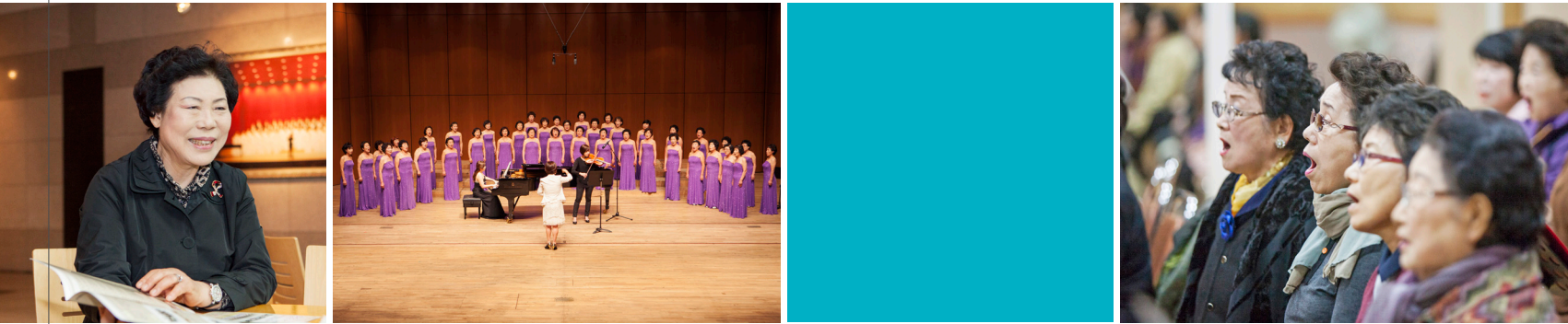
를 시작으로, '기업인과 시인들이 함께 나누는 시 낭송, 예사랑의 색소폰 연주, 성악·판소리 공연, 시화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더 할 나위 없이 풍성한 시간을 가졌다.

'다른 것을 맛보는 것이 예술이지 일등을 매기는 것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했던故백남준 선생의 말씀이 스친다. 평소 맛보지 못한 예술에 흠뻑 취해서 행복한 주말 저녁이었다.

인생을 다듬은 아름다움

창원 은빛소리실버합창단

Writer 진강숙 | Photographer 이상현



세월이 흘러 만들어진 자신의 모습엔, 지나온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다.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것이다. 창원 성산아트홀 연습실에서 흘러나오는 실버합창단의 노랫소리는 그냥 보통 성인 합창단의 소리다. 연습실 문을 여는 순간, 일제히 문쪽을 향하는 단원들의 눈빛과 표정은 소녀와 닮았다.

평균연령 71.2세, 최고령자 86세. 긴 인생의 여정, 황혼의 문턱에서 노래를 통해 가슴에 품어왔던 꿈들을 꽃피우고자 2006년에 60세 이상의 여성들이 모여 창원은빛소리실버합창단을 창단했다.

권안나 지휘자의 지도로 음악적 기량을 충분히 다져 풍부한 가창력과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진 은빛소리실버합창단은 2012년, 2013년에 국립합창단 주최 전국 Golden Age(어르신) 합창경연대회에 경남대표로 참가한 것을 계기로 서울 코랄합창 페스티벌에 초청,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오르는 등 예술문화의 도시 창원시의 위상을 높였다.

정기연주회, 봉사활동, 위문공연, 축하공연, 경연대회 등 많은 연주회로 소외된 이웃과 지역민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창원은빛소리합창단은 활기차고 즐겁게 사는 아름다운 노년생활의 모범을 보이며 실버합창단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진취적인 Silver 문화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매주 화·목요일 오후 한 시부터 세 시까지의 연습시간엔 출석률이 아주 높다. 40명 회원들은 노래를 위해 체력관리도 필수다. 굽 높은 구두를 신어야 하는 공연 날이면 젊은 사람도 힘들 법하건만 은빛소리실버합창단은 안무까지 곁들

인 공연에도 불구하고 리허설부터 공연까지 누구하나 지치지 않는다. 노래하는 즐거움이 곧 에너지가 되어 재충전되는 것이다.

가곡에서부터 민요, 간소네, 뮤지컬 음악까지 장르 불문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은빛소리실버합창단.

"...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길. 널 만난 세상 너는 소원 없어...."

비브라토 없는 맑은 목소리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합창곡이 흐른다. 그녀들은 노랫말처럼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

예향의 역사를 다시 한번

KRIM(Knowledge Resonance In Mass) Gallery

Writer 진강숙 | Photographer 이상헌

한겨울 바람이 매섭다. 잠깐 내리찍는 햇볕에 봄기운 느껴지는 한낮, 기분 좋은 신생 갤러리를 찾았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4 장원빌딩 3층에 위치한 <그림 갤러리>. 40년의 역사에 빛나는 우리지역의 대표 갤러리였던 <동서화랑>의 정신을 계승하고 화려했던 예향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자 마련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서울대학교 공학박사이자 경영학 석사이며 교육 및 경영컨설팅 전문가인 임재봉 대표와 중국 베이징 중앙미술학원에서 순수회화 전공, 미술교육학 석사과정을 거친 후 국내의 메이저 갤러리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던 김효정 관장을 중심으로 한 젊은 지식인들이 KRIM (Knowledge Resonance In Mass) - 대중 속의 지식공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설립한 미술분야 전문법인이다.

전반적 미술전시와 행사를 비롯하여 미술, 인문학 강의, 작가와 관람객의 만남, 미술체험 수업 등 관람객이 편하게 전시장을 찾고 즐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대중적이고 친근한 공간을 지향하는 갤

러리다. 갤러리 안에서 미국 1위의 미술교육프로그램인 '키즈아트(Kidz Art)'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미래의 아티스트 육성과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교육 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현재 그림갤러리에는 마산 출신 남여주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Reflective(반영)'을 테마로 작업하는 남작가의 작품은 스쳐가는 바람과 나무끼는 꽃잎 등 수면에 비친 자연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준다. 작가에게겐 고향에서 진행되는 첫 개인전이며 지역민에게 우리지역 유명 작가의 작품을 가까이서 관람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듯하다.

그냥 한번 둘러보는 그림이 아닌 작품의 내용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해설과 안내를 하며 그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그림갤러리>.

사용된 재료와 빛의 차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작품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다보니 예술 문외한도 수준 높은 작품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림갤러리>를 둘러보는 동안 불모지가 되어 버린 예향의 도시 마산이 어찌면 옛 명성을 찾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발견했다. 어찌면 <그림 갤러리>는 그 희망의 열매인지도 모른다.



문화에세이 / 박서영 시인이 본 '안녕, 투이'

안녕, 잘 지내요. 투이!

Writer 시인 박서영



안녕!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우리는 '안녕'이라고 인사를 한다. 이중적 의미가 들어있는 '안녕'이라는 말은 뒤에 어떤 표현이 붙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경남지역의 순수자본으로 제작한 독립장편영화 '안녕, 투이'를 보았다.

베트남 여성 '투이'의 뒷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시작된다. 곧 길의 소실점에서 차 한 대가 달려와 투이 앞에 잠시 멈춰선다.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어 투이를 잠시 응시하는 사람은 경찰관인 상호다. 상호는 서울에서 좌천되어 투이가 사는 마을로 내려오는 길이다. 두 이방인이 만나는 첫 장면부터 팽팽한 긴장이 느껴진다. 투이와 상호의 마주침에서 대화는 없다. 다만 상호의 무표정한 얼굴이 잠시 클로즈업될 뿐이다. 스쳐가는 상호를 돌아보는 투이의 얼굴 역시 표정이 없다. 이 장면에서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편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베트남 여성 투이가 시집온 곳은 그들만의 평화

를 지키며 살아가는 조용한 어촌마을이다. 어촌에서 느낄 수 있는 생의 활기와 퍼덕거림이 없는 이유는 영화가 끈질기게 이주민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의 초점은 흐트러짐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게 되는 관객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다른 이방인이기도 한 상호의 존재는 감독의 표상인듯 한편으로는 관객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현대인의 초상이랄까.

영화에서 행복한 사람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주민 여성들도 모두 불행하며, 주민들은 불안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폭력을 가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마을의 평화를 지켜나간다. 얼핏 보면 폭력적으로 보이는 방범순찰대들은 마을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시집온 투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

은 시아버지다. 영화 속에서 가장 따뜻한 인물로 그려진 시아버지는 기도하고 반성하며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존재다.

투이 : 아버님, 할매가 뭐예요? 할매가 할머니 맞죠.
시아버지 : 할매는 조상이지.

투이 : 어쨌든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죠?

마을의 민간신앙을 믿고있는 시아버지에게 투이는 가끔 묻곤한다. 우연한 사고로 남편이 죽고 소통되지 않는 사람들과의 갑갑한 현실에서 투이의 기도는 점점 간절해진다. 영화에서 '믿음', '기도', '소망', '희망'은 투이의 잃어버린 모국어어를 통해 표현된다. 어눌한 한국어로 투이는 계속 묻는다. 남편이 죽은 이유와 자신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영화 속에서 투이의 간절한 희망은 한국의 민간신앙, 천주교, 베트남의 신앙 등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기도는 초월적 의식이라는 것을



경남지역의 사회적 제작지원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장편영화 <안녕, 투이>(감독 김재한)가

지난 11월 27일 개봉했다. 비록 전국 9개 상영관에서 개봉해 목표했던 관객수 1000명을 넘지지는 못했지만,

이 영화는 경남은행을 비롯한 지역기업들과 창원시 등의 지원으로 제작된 지역기반 영화라는 점과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많은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작품이라는 데서 의미가 크다.



보여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성의 회복이다. 영화에서 모성을 가진 존재는 차매에 걸린 시어머니다. 현실적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도 투이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시선이나, 또 투이가 배앓이를 할 때 말없이 배를 만져주자 고통이 사라지는 장면, 그리고 아들을 찾아 골목을 헤매다가 삼신당이 모셔진 곳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몽클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시어머니가 흥시를 빨아먹는 장면은 아이가 젖을 먹는 장면과 겹쳐진다. 영화에서 시어머니의 존재는 투이가 그리워하는 고향, 우리가 가 닿아야 할 인식처인 셈이다.

모성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은 평화로 위장된 세상에서 살아간다. 거짓으로 가득 찬 마을을 지키려는 방법대원들과 주민, 그리고 경찰은 개인의 상처에는 관심이 없다. 영화에서 이주민 여성, 소수자, 혹은 약자를 보호해 줄 강한 남성은 등장하지 않는다. 언뜻 경찰관 상호를 통해 투이의 소망은 이뤄질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지만, 영화 후반부에서 그 기대는 무너져버린다. 상호는 반성하려는 사람이 맞지만, 궁극적으로 남편을 죽인 범인이며 위선에 가득 차 있다. 어찌 보면 방법대원 같은 어리석은 마을건달들을 지배

하는 것이 위선에 가득 찬 지식인이며 권력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상호는 투이를 보호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상호도 투이도 이 마을에서는 조용히 살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다. 그러나 두 이방인은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면서도 가장 상처 주는 관계가 돼 버린다. 그렇다면 투이가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면서 그녀를 보호해줘야 할 남편은 어디 있는가. 영화 속에서 투이의 남편 한정수는 정확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는 실체가 없다. 다만 상호의 모든 행동이 거짓이었음을 비디오를 통해 직면하게 되었을 때 투이의 가장 행복했던 모습도 함께 비춰진다. 그녀가 베트남에서, 자신의 모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웠을 때를 동시에 보여주며 슬픔이 극대화된다. 모성, 나약한 여성,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줄 건강한 남성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화는 우울하다. 따뜻한 아버지로 대변되는 시아버지 역시 나약하고 힘이 없는 노인일 뿐이다. 더군다나 후반부에 시아버지는 모성의 상징이기도 했던 시어머니에게 약을 먹이고 자신도 자살을 한다. 투이를 보호하려는 선택이었지만 사실은 투이를 방치하고 버리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그래

서 투이는 다시 세상에서 혼자가 돼 버린다. 그러나 상호는 스스로 죄의식을 가진 존재이다.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씻어낸다. 끝없이 반성하고 성찰하지만 비겁한 현대인의 모습을 상호에서 본다.

"꼭, 알고 싶어요. 남편이 죽은 이유..." 투이의 궁금함이 해결되고, 자신이 의지했던 남자가 범인임을 알았을 때 투이는 그 남자에 의해 죽게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묻게된다. 지금 당신은 그렇게 살아서 행복한가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감추고 살아가면 정말 행복한가요? 폭력을 감춘 머리위에는 그저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평화가 흐르고 있을 뿐이다. 카메라는 시종일관 판타지나 동화, 웃음이 사라진 삭막하고 쓸쓸한 현실만을 보여준다. 그것을 관객은 지켜봐야 한다. 불편한 진실과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투이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투이'로 대변되는 이주민 여성의 신산한 삶을 통해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된다.

이 땅의 투이들이여, 안녕, 잘 지내요!

GYEONGNAM MECENAT

경남메세나 회원사

Gyeongnam Mecenat
Members

(주)무학
경남오페라단
(주)경원코리아
(주)고려철강
도난실
삼원테크(주)
(주)센트랄
우수AMS(주)
임경숙
청호산업개발(주)
경상남도
경남에너지(주)
경남은행
경남자동차판매(주)
경원벤텍(주)
(주)고구려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
리베라컨벤션
법무법인 금강
산골농장
신화철강(주)
원광종합건설(주)
(주)인산가
창원대학교 김도기
한국민예총경남지회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한림건설(주)
(주)현대단조
화성G&I(주)
(주)화영
(주)화인테크놀리지
(주)오앤이
the큰병원
가야BBS(주)
(주)강민종합건설
강산기술검사
거제레미콘(주)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거제컨벤션웨딩뷰페
경남스틸(주)
경남신문
경원여객자동차(주)
고운치과병원
광득종합건설(주)
광신기계공업(주)
(주)구구
(주)국제전기
그린산업(주)
그림갤러리(주)
(합자)금강전기공업사
금강중기
금성이노텍(주)
(주)금슬개발
(주)기산산업
기선산업(주)
김선경외과의원
김순태치과의원
김해시공영(유)
낙우산업(주)
남명산업개발(주)
남양매직(주)
(주)네오씨티알
(주)노키아티엠씨
대경건설(주)
(주)대동주택
대방스페셜스틸(주)
대선주조(주)
대신금속(주)
(합)대신전기공업사
대우백화점
대한전선전기(주)
(주)대호엠애프아이
(주)덕광중공업
(주)동구기업
동명다이나몬드
동양특수금속(주)
(주)동오프랜지
(주)동은화학
동인하이텍(주)
동환산업(주)
두남화학
디씨엠(주)

디케이락(주)
라운건설(주)
마산정안과
명성개발(주)
명제한의원
무림페이퍼(주)
문윤수치과의원
미르치과의원
미조종합건설(주)
미즈맘 여성병원
범한산업(주)
(주)베스트엔드베스트
(주)보강기업
(주)부경
부산교통(주)
(주)부일이앤씨
(주)부평디엔피
(주)북성산업
비에이치아이(주)
(주)사릭
(주)산호수출포장
(주)삼보산업
삼우금속공업(주)
삼원동관(주)
(주)삼전건설
삼정기업
(주)삼정터빈
삼흥열처리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유)상화도장개발
서순연
(주)서영시스템
선린자모의원
성부가스산업(주)
(주)성우
(주)성환금속
(주)세복
(주)세양정공
(주)세호테크
속편한내과
승진기계(주)
시영건설(주)
신광에이스전기(주)
신대양(주)
신동방산업(주)

신요프드시스템(주)
(주)신우공업
신창기계
(주)신한물산
(주)씨노텍
(주)애드테크
(주)에스에이치아이
에이스브이
영광산업(도의회)
(주)영남엘피씨
영민테크
(주)영신화공
(주)영일정공
(주)영진테크
(주)영창기업
예인여성병원
(주)오곡산업
오션커뮤니케이션즈
(주)옥산아이엠티
원 한의원
원광산업석재
(주)웰팀
유니온엔지니어링
유림건설(주)
(주)유림철강
유전공업(주)
윤한의원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의료법인성녀의료재단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유)이삼사바이호텔
(주)이앤티
(주)이우
인산죽염촌(주)
인화정공(주)
일림나노텍(주)
(주)장생도라지
(주)장성E.P.S
(주)장한
정남종합건설(주)
(주)정문애드테크
주용테크
중앙건설(주)
(주)중앙금속
중원종합건설(주)

(주)지에스비
창원시
창원상공회의소
창원서울이비인후과
(주)창원자동차학원
청아의료재단
초심공업(주)
최익수의원
쥬고쿠삼화페인트(주)
(주)케이씨
(주)코텍
쿠쿠홈시스(주)
태광실업(주)
(주)태완정공
(주)태현메가텍
(주)포스텍
포스코특수강(주)
피케이밸브(주)
하이에어코리아(주)
한국남부발전하동본부
한국소니전자(주)
(주)한국아나세
(주)한국자연환경
한국정기공업(주)
한국제강(주)
한국태양유전(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주)해동설계종합건축사
해성메탈(주)
해수종합건설(주)
(주)현대기업
(주)해동
호성
(주)호텔인티내셔널
흥기종합건설(주)
화이트치과
화일종합건설(주)
(주)화영
(주)화인에이티씨
(주)환웅전기
(주)환웅정공
흥일기업(주)
PS엔터테인먼트
STX조선해양(주)
STX엔진(주)



GYEONGNAM MECE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사업 Arts & Business

결연사업 : 기업과 예술단체가 1:1 결연을 맺고, 사회공헌, 마케팅, 경영전략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여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기업은 예술단체에 자금, 사내 공간, 티켓 구매, 직원 자원봉사 등을 지원하고, 예술단체는 기업에 사내공연 및 직원 예술교육, 공연초대, 기업 홍보 등 기업의 창조적 문화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회원사 협력사업 Cooperation

찾아가는 공연 : 문화예술 서비스를 통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기업 문화를 형성하고자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공연, 전시, 예술동아리 등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울림과 소통전 : 기업을 그림에 담아 드립니다.

문화공감 : 회원사에 우수문화공연 관람티켓을 제공합니다.
문화경영도서 : CEO를 위한 문화경영 관련 도서를 배부합니다.
지정기탁 :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회원사의 각종 후원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문화 나눔사업 Sharing Art

찾아가는 메세나 :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우리 이웃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즐거운 나눔티켓 : 도내 복지시설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돕고 있습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Development

<경남메세나> 발간 : 도내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홍보하고, 지역 문화소식을 알리고자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남메세나포럼 :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 :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또는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여 경남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홍보대사 위촉 : 지휘자 금난새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기업과 예술의 행복한 동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남A&B오케스트라 : 직장인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예술이 흐르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 개최 : 메세나 활동으로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대상 시행 :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등을 발굴하여 공로를 시상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농사에 도움을 드릴 것은 없는지
농업자금 지원사업

혹시, 자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서민금융 지원사업

어떻게 하면
낮선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농촌과 국민을
행복으로 이어주는 농협**



NH  **경남농협**

www.kdcons.co.kr

광득은 언제나 당신이 우선입니다

내일은 더 큰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기술개발을 통한 한차원 높은 고객 만족과 합리적 경영으로
21세기 지식기반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KWANG DEUG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건설업체

리모델링 공사 조경공사 PQ 및 대인공사 소방 수질방지사설업
건축/토목 공사 전기공사 BTL 사업 BTO 사업 시설통 부동산개발업



광득종합건설(주)
Kwang Deug Construction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97번길 34(파티마빌딩 8층)
Tel. 055·273·7391 Fax. 055·273·7395



광득산업개발(주)
Kwang-deug industrial development CO.LTD

경남 밀양시 부북면 예림서원로 69
Tel. 055·354·7957 Fax. 055·355·7669



경남메세나협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3 3층 | Tel. 055. 285. 5611 Fax 055. 274. 1923

www.jgooddaynaam.org

요금별납

창원우체국

좋은세상 만들기, 좋은데이가 함께합니다



네팔 굿데이 스쿨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아이들을 위하여

해발 약 1,800m의 랑탕 지역에 건립된 '네팔 굿데이스쿨'은 네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주)무학에서 학교 건립 비용 전액 후원과 좋은데이나눔재단이 직접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건립된 희망학교입니다. '네팔 굿데이스쿨' 완공으로 랑탕지역의 부족한 학업환경이 개선되어 기존학생 135명 외에도 학교를 가지 못했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데이나눔재단